

올해 오스카의 또 다른 주인공 ‘미투’ 여배우들



■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애슐리 저드, 애너벨라 시오라, 셀마 헤이엑(왼쪽부터)이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섰다. ■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한 제니퍼 로렌스. 그는 이날 조디 포스터와 함께 여우주연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 샘 록웰, 프랜시스 맥도먼드, 엘리슨 제니, 게리 올드먼(왼쪽부터)이 각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가 작품상과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 등 4개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이 됐다. 영화 연출을 맡은 기예르모 델토로 감독이 감독상과 작품상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LA | AP·뉴시스

아카데미 시상식서도 이어진 ‘미투’

애슐리 저드 등 피해자들 시상자로 ‘셰이프 오브 워터’ 작품상 등 4관왕 ‘쓰리 빌보드’ 맥도먼드 여우주연상 ‘NBA 스타’ 코비, 단편 애니상 수상

침묵을 깬 사람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5일 오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성폭력 저항 운동인 ‘미투’를 주도한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멈추지 않고 편견과 성별, 인종의 차별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외침은 현재 국내에서도 거센 파도를 만드는 ‘미투’

운동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날 시상식에는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여배우 애슐리 저드와 셀마 헤이엑, 애너벨라 시오라가 공동 시상자로 올랐다. 특히 애슐리 저드는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침묵을 깬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뿔뿔히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애슐리 저드는 시상식에서 “우리 앞에 놓인 여정은 멀지만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며 “올바른 우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이제는 시간이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90년간 지속된 것처럼 앞으로 90년간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도 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앞서 1월 열린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처럼 여배우들이 저

마다 블랙드레스를 입고 ‘미투’ 연대를 외치는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할리우드가 나아가야 할 ‘지향’에 대한 확실한 선언은 나왔다. 진행자 지미 키멜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은 뒤 “광장이 용감한 이들이 목소리를 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말을 통해 ‘미투’와 아카데미는 함께 나아가갈 것임을 알렸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는 올해 주요 부문을 석권한 영화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난다.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주요 부문 4관왕을 차지한 ‘셰이프 오브 워터’는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부와 여성과 물에서 살아가는 괴생명체의 사랑을 그린 작품. 미·소 갈등이 극심한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중’(鰐)이 다른 두 생명체가 한계를 딛고 사

랑하는 이야기다. 관심을 끈 여우주연상은 ‘쓰리 빌보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차지했다. 21년 전 ‘파고’에 이어 두 번째 수상. 영화에서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엄마의 황폐한 모습을 그려낸 그는 객석을 향해 “모든 부문에서 후보에 오른 여성들은 저와 함께 일어나 달라”고 부탁한 뒤 연대와 포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색적인 수상자도 탄생했다. NBA의 전설적인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디어 바스켓볼’로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2015년 발표한 자신의 은퇴 선언문을 토대로 6분 분량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그는 “나는 드리블만 할 줄 알았는데 멋진 영화를 아카데미가 됐다”고 감격해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황금빛 내 인생’ 박시후 일본 팬들 은혜 갚는다

응원 보답 서울 초청…현지 팬 이벤트도



박시후

KBS 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으로 다시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박시후가 그 기쁨을 일본 팬들과 나누는 시간을 보낸다. 4월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팬들을 만난다.

박시후는 11일 드라마 종영 후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31일 일본 팬들을 서울로 초대해 2박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다. 4월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팬들을 만난다.

박시후의 연이은 일본 팬 이벤트는 그가 4년 공백을 딛고 활동을 재개하는데 있어 국내 팬들 못지않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일본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4월3일이 생일인 박시후는 연예행사처럼 팬 이벤트를 벌여왔다. 올해는 ‘자연, 모험, 교류, 힐링’을 콘셉트로 박시후가 ‘마법의 숲에 사는 왕자’로 변신해 팬들을 맞이한다. 팬들과 함께 하는 생일이벤트는 4월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박시후는 일일이 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팬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한 자연에서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롭게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4월20일에는 일본에서 ‘황금빛 내 인생’ 프로모션 행사에 나선다. 드라마는 일본 KBS월드 채널에서 지난해 12월16일부터 방영 중이다. 박시후는 시청 포인트나 명장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대에서 해당 장면을 재연할 계획이다. 무대를 자신의 실제 방처럼 꾸며서 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선물 증정, 노래 등의 순서도 마련된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는 박시후가 모든 팬을 한 명씩 배웅할 계획이다.

백슬미 기자

차승원·이승기의 아픈 손가락 ‘화유기’

잇따른 악재 끝에 시청률 6.8% 중영 차승원-홍자매 작가 재회 기대 무색 이승기 복귀작…새 매력 발견 ‘위안’

연기자 차승원과 이승기에게 tvN 드라마 ‘화유기’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존재로 남게 됐다. 이들은 캐스팅 단계부터 높은 화제를 모으며, 의욕적으로 촬영에 임했지만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드라마가 외부 요인으로 휘청거렸다. 이로 인해 연기자로서 제대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하고 역할을 마무리했다.

4일 6.8%(닐슨코리아)로 중영한 ‘화유기’는 지난해 12월23일 방송을 시작하고 20회 동안 3~6% 사이를 머무는 데 그쳤다. 방송시작 전 ‘대박’을 예상했던 방송가 기대치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화유기’는 초반 악재가 겹치면서 시청자의 관심과 신뢰를 동시에 잃고 말았다. 2회



차승원과 이승기의 조합으로 방송 전부터 기대적으로 꼽혔던 tvN 드라마 ‘화유기’는 초반 잇단 악재와 개연성 부족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았다. 사진제공 | tvN

방영 중 컴퓨터그래픽 작업의 미완성이 노출되고 급기야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 분량의 불충분으로 일주일 결방된데 이어 스태프 추락사고가 뒤늦게 알려지고, 연출자 박홍균 PD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김병수 PD와 김정현 PD를 중간에 투입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제작진은 드라마 재경비를 위해 안간

힘을 쏟았지만, 한 번 등 돌린 시청자의 관심을 다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승원은 2011년 ‘최고의 사랑’의 인기 재현을 기대하며 박홍균 PD,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와 재회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이들의 만남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차승원은 코믹부터 멜로, 카리스마, 부성애 등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며 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활약은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이승기로서는 호된 복귀 신고식을 치른 셈이 됐다. 군 복무 당시 출연을 확정하고 제대 직후 촬영에 합류할 만큼 이승기는 드라마에 의욕을 드러냈다. 또 처음으로 악동 캐릭터에 도전하는 등 변신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드라마의 시청률과 화제성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다만 이승기의 능청스럽고 세련된 매력이 새로이 발견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위안거리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리틀 포레스트’서 발견한 진주, 진기주

대기업 근무·기자·슈퍼모델 이색 이력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또 한 명의 ‘진주’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관객에게 안겨주고 있다. 작품에 대한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에 그 추억 가운데 한 사람, 하지만 아직 관객에게는 낯선 신인 역시 만개한 기쁨으로 무대에 나서고 있다.

‘리틀 포레스트’의 또 다른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진기주가 주인공이다. 2015년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두번째 스무살’로 연기 데뷔한 진기주는 ‘리틀 포레스트’의 김태리, 류준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화에 대한 호평과 관심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꼽힌다.



진기주

진기주는 2016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리틀 포레스트’ 오디션에서 연출자 임순례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입상에 지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자아를 찾아가는 김태리의 친구 역할을 연기한 그는 1년 동안 촬영을 이어가야 하는, 신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선택을 택했다.

‘리틀 포레스트’ 제작 관계자는 “1년 동안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동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성격의 소유자가 필요했다”면서 “김태

리, 류준열과 화학적으로 제대로 결합한 주인공을 찾아낸 셈이다”고 말했다. 덕분에 진기주는 ‘리틀 포레스트’의 다양한 캐릭터 가운데 가장 높은 관객 평점을 받으며 스크린에서 재탄생했다.

이색적인 이력도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그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지녔다. 지역민방의 기자로서도 활약했다. 하지만 모두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는 2014년 슈퍼모델대회에 출전해 입상했다. 이후 연기자로 전업해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굿 와이프’ ‘수요일 오후 3시30분’ 등 드라마를 통해 기반을 쌓았다.

현재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 중인 그는 이 같은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향후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유망주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윤여수 전문가 tadada@donga.com

숫자뉴스

배우 원빈·이나영 부부가 최근 사들인 서울 청담동 소재 빌딩 매입가격. 5일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빈·이나영 부부는 2월 21일 서울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근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빌딩을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해시태그 컷



‘크리미널 마인드’ 우정은 영원히

지난해 방송한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출연자들이 회포를 풀었다. 유선, 손현주, 이선빈, 이준기(왼쪽부터)는 한 음식점에 모여 맥주를 즐기고 있다. 손현주를 제외한 세 사람은 손가락으로 브이 포즈를 취하고 깜찍한 표정으로 즐거움을 드러낸다. 유선은 “함께 있으면 늘 웃음 가득한 우리. 해피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오래 함께 하고픈 사람들. 서로를 향한 힘 되는 이야기들”이라며 인연의 소중함을 나타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포스트 #이준기 #손현주 #유선 #이선빈 #크리미널 마인드

내 마음에 작품 하나 뉴이스트 JR



영화 ‘7번방의 선물’

눈물 콧물 쏟게 만든 슬픈 ‘어른들의 동화’

기대 없이 본 영화나 책은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것을 안겨준다. 작품을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뜻밖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럼 뉴이스트의 리더 JR(김종현)도 우연찮게 본 영화에서 감동 그 이상을 얻었다. 스케줄을 초단위로 쪼개 쓸 만큼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과거 영화를 보며 얻은 감명은 여전히 삶의 활력소와 같은 윤기를 더해준다.

JR은 평소 영화를 즐겨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추천 영화’나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를 꼽을 때는 주저 없이 ‘7번방의 선물’(감독 이환경)을 첫손에 꼽는다. 2013년 1월 개봉해 1300만 관객을 올린 영화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지적장애인 용구(류승룡)와 그의 딸 예승이(갈소연)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다. 1972년 9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강간 살해당한 사건의 범인으로 무고한 정원실을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오달수, 정만식, 박원상, 김정대 등 배우들의 코믹 연기와 눈물 어린 감동이 어우러져 ‘눈물 콧물’을 뿜었다. JR은 이 영화를, 주위의 추천도 있었고, ‘1000만 관객 영화’라는 점에서 챙겨봤다. 감동의 여운은 오래갔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동화와 같은 영화”라고 했다.

그는 “처음엔 제목이나 줄거리만 보고, 어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선징악 스토리’라고 생각했다. 선입견이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주인공의 모습에 한 번 울고,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에 또 한 번 울었다”면서 “더군다나 해피엔딩이 아닌 슬픈 결말이어서 더 오래 여운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